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단위로 꾸릴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고 해마다 군에 찾아오시어 군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농사를 보다 높은 과학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로해대책하시기 위하여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의 제1작업반 감자포전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마다 7월이면 감자역병과 장마철피해로 감자수확고에 영향을 주고있는데 올해 형편은 어떤가고 물어주시면서 농업부문에서 북부고산지대 감자농사에서 제일 난문제인 낮은 기온과 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작업반의 농기계와 트랙터들을 보시면서 보유실태와 가동률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군과 농장에 와서 제일 관심하며 알아보려고 한 문제가 감자농사의 기계화비중과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것이였다고 하시면서 농장의 종합적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겠다고, 지금 농업부문에서 20여년전에 장만해놓은 농기계를 기계화의 본보기로 내세우고있는데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현대적이



며 능률높은 농기계들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농장일꾼들이 견문을 넓혀 세계적인 농기계발전추세도 잘 알고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감자종자저장고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종자저장고의 온도와 습도, 탄산가스의 농도를

자동적으로 측정 및 조종하여 감자종자저장을 과학화할수 있는 환경자동조종체계를 도입한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감자발전성이 늘어남에 맞게 종자량을 잘 타산하여 능력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농사에서 기본은 종자인것만큼 감자종자생산과 보관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채종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보당 소출이 높은 감자품종을 육종도입하는 사업과 함께 감자가루생산공장도 일떠선것만큼 식품용도에 맞는 감자품종도 선택하여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산성만 생각하면서 몇가지 우량품종을 모든 농장에서 일률적으로 심지 말고 맛이 좋은

며 감자가공품생산에서 질을 보장할수 있는 다양한 품종들을 도입하여 감자생산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을 돌아보시면서 삼지연군 중흥리에 소재지마을을 잘 꾸리기 위한 구상과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중흥농장과 같은 령도업적단위들부터 먼저 잘 꾸리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군안의 모든 농장들을 점차적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에서 읍지구를 꾸리는데만 매달리지 말고 농장마을들을 본격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을 꾸리는데서 새로운 기준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근 농업부문에서 이렇다할 본보기를 꾸려놓은것이 없나니 20여년전 대상을 표준으로 내세우고있는데 발전하는 현실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기준이 될수 있게 삼지연군과 군안의 농장들을 현대문명이 융축된 리상군, 리상농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 량강도의 감자농사문제로 그토록 마음쓰신 장군님의 념원을 꼭 풀어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감자가루생산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 풍족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에 수천(千)톤의 감자가루생산공장을 꾸릴데 맞게 감자가루를 원료로 하는 년간 2, 000(千)톤의 감자가공식품들을 전문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을 꾸리실 결심을 안으시고 현지에서 대책문제들을 협의하시기 위하여 공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가루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을 건설한 이후 만부하를 걸어보지 못하였는데 올해 수확하는 감자를 가지고 감자가루를 팡팡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감자가루와 감

자가공품들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가루를 가지고 국수, 우동, 짜배기, 편튀기, 파자, 영양쌀을 비롯한 다양한 식료품들을 만들기 위한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감자가공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감자가루와 여러가지 감자가공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표준공장을 설립한 경험과 설계에 기초하여 북부고산지대의 감자산지들에도 현대적인 감자가루생산공장들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된 감자가루보관정형을 료해하시고 보관조건을

잘 갖추어 감자가루의 품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과학적인 품질검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시설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애호관리하고 식료품생산공정으로서의 충분한 위생환경을 보장하며 로력관리를 실리적으로 짜고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새로 건설한 우리 식의 순환비등층보이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설계와 기술, 우리의 로력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건설한 순환비등층보이러에서 적은 석탄으로 생산공정에 필요한 증기를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받아들인 현대화된 설비라고 하여도 우리 나라 형편과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랑패를 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이 공장건설초기 기술신비주의에 빠져 경제적라산이 맞지 않는 설비를 차려놓고 생산에 지장을 준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제는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것만큼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감자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의 감자농사정형을 료해하시고 감자과종을 적기에 질적으로 하고 감자발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를 수확하는족족 수송하기 위한 감자수송대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료전기재들을 당에서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한알의 감자도 허실하지 않고 제때에 실어들여 공장에 감자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감자가공공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공장을 능력대로 만가동운영함으로써 당에서 마음먹고 꾸려준 공장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공장으로서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개봉전망대에서 삼지연읍건설총계획안과 삼지연읍읍조감도를 보시며 해설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망적으로 삼지연읍읍건설계획에 삼지연못까지 확대개발하는 안을 포함시키는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읍읍조감도를 보시면서 건물들의 외장재와 철관지붕재의 색깔을 건물용도와 특성에 맞게 조화롭게 하며 외부 마감을 백두의 천연수림과 잘 어울리게 점잖은 색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건설을 철저히 교양구획, 살림집구획, 현대거리구획, 산업구획, 체육문화교육구획, 상업봉사구획, 관광구획으로 가르고 비준된 총계획안에 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건설을 통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과정이 지방건설에서의 일대도약기로, 하나의 혁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은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속에서 진행되는 사



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명수지구를 돌아보시면서 자연지대적특성을 살리면서 협곡을 따라 여러 형태의 살림집과 건물들을 다양하게, 특색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건설하면서 산림을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나무 한그루와 풀 한포기도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혁명의 성지라는것을 명심하고 백두산지구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꾸리는 사업을 통하여 읍지구의 면모만 일신시키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상태도 개변되게 하여야 한다고, 삼지연군이 주인으로서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온 나라가 달라붙어 꾸려준다고 하여 자립성과 자력갱생정신이 회복되면 안된다고, 삼지연군에서는 군을 공산주의리상향

업인것만큼 지도사업과 보장사업을 짜고두고 립체전, 전격전을 벌려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낮은 북부지대의 특성에 맞는 건설공법들을 도입하며 속도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시공지도 및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도수송을

확고히 앞세워 건설적기에 맞게 건설에 필요한 물동을 집중적으로 실어날라 건설장들에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재들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성원들과 건설자재증을 절약정신으로 무장시켜 량비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 읍지구 구획별로 원림목화설계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류달리 사랑하신 북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와 답사속영소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에 많은 단위들이 들어와 건설하고있는데 맞게 국가건설감독기관에서 정연한 감독체계를 세우고 요구성을 최대

으로 꾸려가는 행정에서 마땅히 새 세기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동안 삼지연군건설이 많이 추진되었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 건설자들에게 감사

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을 몸가까지 부르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군, 공산주의리상향으로 꾸릴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 앞장에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수고와 노력을 치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영광의 순간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군당일군들은 커다란 충격속에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며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군은 지역적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군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전면적부흥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절

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군의 안주인이며 군내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참모부라고 할수 있는 군당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대단히 중시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당일군들은 당중앙의 사상을 배속까지 새긴 정수분자들이 되어야 하며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집행을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강력한 견인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당일군들에게 참된 인민의 총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우리 장군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인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 속이야기를 리놓을수 있는 친정집,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가 되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도 삼지연군당위원회의 한 성원이 되어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살기 좋은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려나가는데 이바지하자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 고향집뜨락을 꾸려가는 심정으로 군현대 화사업에 정성을 고이고 온넋을 바쳐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 제힘으로 훌륭히 꾸린 선경마을

\* 서흥군 범안리를 찾아서 \*



만경산기슭을 감돌아 흐르는 서흥강의 물길을 막아 건설한 발전소며 뒤산의 과일나무들, 넓은 벌판에서 키돋음을 하는 푸른 벼모들, 산기슭에 자리잡은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며 칠색송어와 같은 맛좋은 물고기들이 꼬리를 흔드는 아담한 마을... 이곳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번듯하게 꾸려놓은 범안리에서 우리가 본 풍경이었다.

마을의 생김새가 마치 날아오르는 기러기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범안리라고 부르는 이곳이 또다시 몰라보게 변모되어 새 생활의 랑만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도시의 문화후생시설 못지 않게 훌륭히 꾸려진 범안원이며 큼직한 부지를 타고앉은 번듯한 학교, 도시와 멀리 떨어져있건만 병치료에 필요한 갖가지 의리기구들과 입원실이 갖추어진 리인민병원은 말그대로 나날이 향상되어가고있는 문화농촌의 면모를 보여주고있었다.

지난날 논농사도 제대로 할수 없어 척박한 고장이라고 불리워오던 이곳이 오늘 래일에 대한 희망과 보람찬 생활의 랑만이 넘쳐나는 선경마을로 전변되게 된데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 46(1957)년 5월 이곳을 찾으시여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조합(당시 서흥군 새리농업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을 보시고 이렇게 찬물을 직접 눈에 대면 벼가 싹해를 받아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양어장을 건설하여 찬물에서 잘 자라는 칠색송어와 기뻐어와 같은 물고기들을 기르고 양어장에서 더워진 물을 눈에 대면 논농사에도 좋고 인민들이 사철 물고기를 먹을수 있게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90(2001)년 7월 훌륭하게 꾸려진 범안리를 찾으시여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이곳 농장원들의 보다 즐거운 문화정서생활을 위하여 온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이곳 주민들은 절세위인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규모가 큰 양어장도 건설하고 나지막한 야산들에는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도 심었으며 서흥강의 물길을 막아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범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집집마다에 흘러들어 오늘도 그 덕을 토틈히 보고있는 범안리주민들이다.

정광명 범안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밤도 지어먹고 난방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쉬임없이 울리는 발전기들의 동음소리는

생활의 랑만과 기쁨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려주는것만 같았다.

이윽하여 우리는 아이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마음껏 자랄수 있도록 온갖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탁아소와 유치원에도 들리었다. 이곳에서 만난 전급회농장원은 첫머리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쉽게 오고갈수 있는 포진가까이에 탁아소며 유치원을 건설한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범안리사람들이 즐겨 찾는 범안원에도 들리었다. 원통식으로 지은 범안원의 흠에 들어서니 푸른 파도 설레이는 바다가 풍경이 시원하게 안겨왔고 무더운 여름철에 몸을 식히고 피곤을 풀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장도 꾸려져있었다.

농장의 관리위원장은 이제 가을이 오면 마을의 풍경은 더 볼만 하다고 하면서 황금익삭 설레이는 벌판과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뒤산의 파수원, 물고기가 뛰어번지는 양어장을 한폭의 멋진 그림과 같다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농민들도 도시사람들 못지 않은 훌륭한 생활조건을 누리며 하시려고 농촌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과 자기의 행복을 제 손으로 창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이곳 주민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본사기자 강류성



누가 나에게 자기의것으로 나날이 흥해가는 조국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선참 《소나무》책가방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물론 몇몇사이에서 조국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척척 만들어내고있는 지하전동차며 경비행기, 트랙터, 자동차, 고기배를 비롯하여 큼직한 자랑거리의 셀수 없이 많다.

하지만 자식을 둔 녀성으로서 조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속에서 인기있는 《소나무》책가방이 무엇보다먼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해야 할것이다.

꼭같은 교복차림과 대조를 이루며 동심에 맞게 그려진 소년장수며 명리한 너구리를 비롯한 그림들과 《소나무》상표표 붙인 멋쟁이 새 가방을 메고 어깨동무 나란히 등교길에 오르는 소학교 학생들의 발달한 모습은 정말이지 인상적이었다.

작고도 큰 메아리로 나를 감동시킨 《소나무》책가방이다. 그것은 이 책가방 하나에서도 자기것에 대한 긍지를 안고 살아가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알수 있기때문이였다. 그것을 나는 평양가방공장을 돌아보면서 더욱 절감하였다.



## 《소나무》책가방이 말해주는 것은

대동강반의 통일거리에 위치한 평양가방공장은 학생가방과 일반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크고 현대적인 가방생산기지이다. 공장은 외형부터 특색이 있고 주변환경도 깨끗하여 정신이 맑아지게 하였다.

공장의 한 일군은 이 공장에 깃들여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소녀님의 다심한 령도의 손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가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학생가방도안들도 보내주신

그이께서는 2017년 새해의 뜻깊은 첫 현지지도의 자욱도 평양가방공장에 새기셨다고 한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이 일떠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방사태, 가방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는것이였다.

결말 안이라고 공장은 안팎으로 멋있었다. 우리 일행은 먼저 1층에 꾸려진 제품전시실부터 돌아보았다. 견본실에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각각색의 학생가방들이 진렬되어있었는데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 나이별 특성에 맞게 잘 만든것으로서 절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어 우리는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과 생산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지휘조종하는 통합조종실을 돌아본 다음 도안창작성에도 들렸다.



도안창작성 실장이 나서서 자기들의 남다른 긍지와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도안창작과 투영기능을 다같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리용하여 대 사람들이 창작한 도안들을 놓고

합평회도 진행하고 설계에서 제기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도 토의하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단축하고있으며 동시에 정확성, 신속성도 보장하고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가방을 만드는 생산현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우리 일행에게 동행한 일군은 공장의 재단과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들마다에 레이자재단기를 비롯하여 제 힘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돌아본 재단작업장에서는 레이자재단기로 가방편을 재단하고있었는데 기대공이 조각단추를 한 번 누르지만 하던 각이한 형태로 재단되는 모습이 참으로 볼만 하였다.

재봉작장에 들어서니 《제품 하나에도 어머니된 심정을...》, 《우리의 심정이 높뛰는 한》이라고 적혀진 속보들이 눈에 띄우고 산뜻한 작업복을 입은 녀성로동자들이 정색에 일손을 놀리며 기대를 들리고있었다.

마감공정에서는 기대공들의 정성이 깃든 학생가방들이 련이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가방의 모양과 질이 나무랄

데가 없었다. 동행한 일군은 가방에 붙은 《소나무》상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치 태어난 아기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이름을 달아주려 마옵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고르고달라 달아주시는 이름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소나무! 무엇이랴 말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심금을 울리었다. 소나무는 조선의 국수이다. 그 푸르고 역센 기상처럼 나라의 꽃봉오리들이 자기것이 제일이라는 자존심을 빼대처럼 굳게 간직하고 소나무처럼 굳세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깊은 뜻이 어려와서였다.

정말이지 길을 봐도, 안을 봐도 남의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을 《소나무》책가방이였다.

동행한 일군은 이제 이 가방안에 우리의것, 우리가 만든 질 좋은 민들레학습장이며 필갑, 수지연필, 크레용, 지우개, 자, 색종이를 비롯하여 갖가지 학습품들이 채워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나는 완성되어 나온 《소나무》책가방 하나를 소중한 보물인양 손에 들이보았다. 손에 감수되는 가방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무게는 실로 무거웠다. 작은 책가방에 담겨진 자

기것에 대한 긍지, 자기것을 사랑하는 의미가 너무도 무겁게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다. 그날 평양가방공장을 나서는 나의 마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것으로 더욱 강해지는 조국의 기상에 대한 격정으로 부들부들하였다. 어찌 이 공방뿐이겠는가. 평성시와 사리원시, 강계시, 해산시, 해주시를 비롯한 전국도처에 학생가방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가방공장들이 일떠서 질 좋고 맵시있는 가방들을 많이 만들어 학생소년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현대적인 공장과 거리가 보란듯이 일떠서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인 명제품, 명제품들을 만들어내고있는 조국의 현실. 참으로 밝고밝은 땅이다. 조국인민들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노래, 이제 내 입가에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노래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한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

... 우리 힘 꺾을 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뉘를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름들라라 ... 재중동포 김영희

